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를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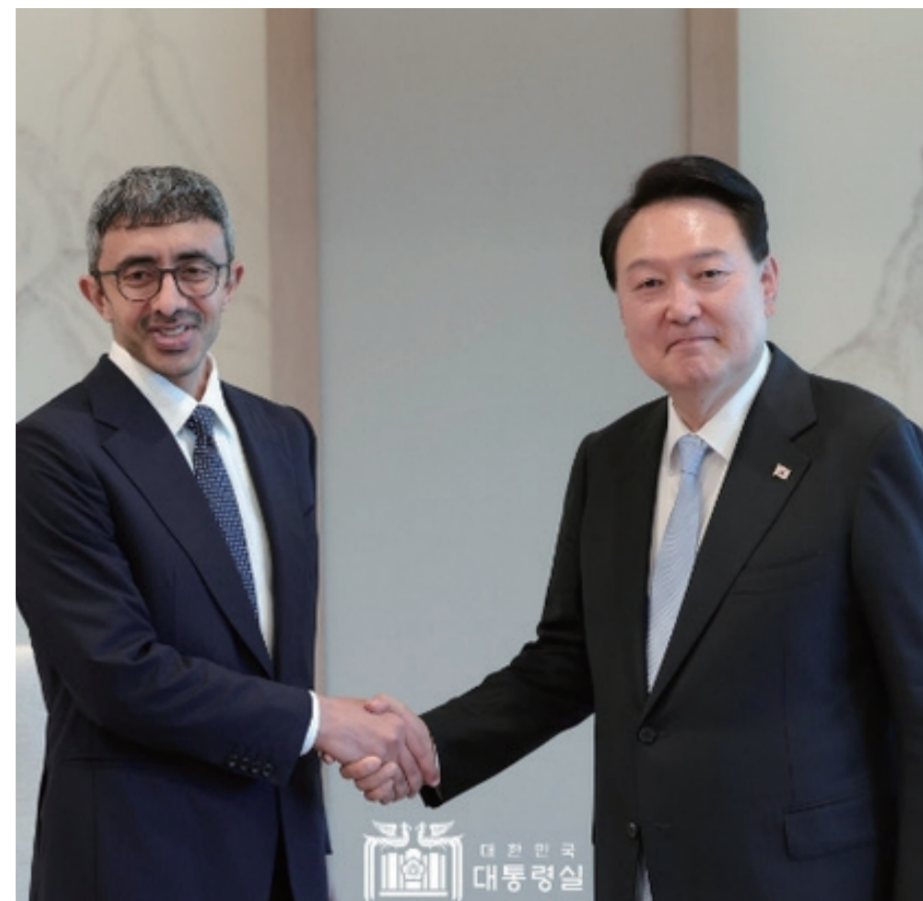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 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만나 소통·협력 다짐

김동연 지사, 13일 도답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오찬 간담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답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은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박영수·백현중·이택수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김 지사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또 제가 펴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라며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마련해 실현하는 위원회"라며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소통과 화합을 긴밀하게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 소통을 위한 4번째 자리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지난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바 있다.



최만식/기자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전라남도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 1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의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도에선 12만 6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 4천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5천400만 원보다 6% 많은 167억 3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는 2022년 가입률 54%보다 높은 90%, 20만 9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중배/기자

서울시 '코로나 키즈' 무료 발달지연 검사... 전국 최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오세훈 시장, 8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보육 관계자·학부모·전문가 간담회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8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의 경우 뇌 발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조기 개입을 통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인 18~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모두 대상이다.

언어인지 등 아이의 발달 지연이 걱정되는 부모들이 비용 부담이나 병원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조기 발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발달검사 병원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비용도 20~70만원으로 부담되어 민간 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3년여 만에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됐지만, 3년 넘게 마스크와 한 몸처럼 지내면서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줄었고,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영유아의 사회성과 인지 발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456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33%, 152명)이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오전 9시~18시, 토요일 오전 10시~17시 운영하며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화·목요일에는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4월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수요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 총 14만8천 명 중 21,675명(14.7%)가 발달검사를 희망, 보육 현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전문 검사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발달검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동별 발달검사 결과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에 제공되며,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에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아이 발달 상태가 궁금한 부모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온라인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가 발달 상태 확인 및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보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발달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발달검사에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소아정신과, 영유아 발달지연 심리·치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연령별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 ▲경계군 ▲위

험군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

정상군 :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발달 증진 활동 자료와 가정양육 가이드를 제공하며, 경계군 : 부모와 아이의 애착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적관찰 관리를 위해 6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준다.

위험군 : 전문가 진단 후 심화평가 대상을 선별하여 심화검사를 실시하고, 거주지 인근 바우처 기관·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 치료방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8일 14시20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학부모, 전문가, 보육 관계자 등과 현판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시설을 둘러본 후 학부모, 보육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관 기념 현장간담회를 갖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센터의 방향성 등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소식에서 "3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 소중할 일상을 되찾았지만, 마스크 착용 장기화가 우리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검사·상담함으로써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의료원 현장방문!

팬데믹 방역에 힘써준 의료진 격려·감사의 마음 전달, 호흡기센터 건립부지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14시, 부산의료원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찰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서 방역 최전선에서 힘겨운 업무를 수행한 의료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호흡기센터 건립부지 확인·점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의료원 운영을 정상화하는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문 현장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부산시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와 방역에 힘써준 부산의료원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2020년 7월부터 부산의료원 내에 호흡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호흡기센터는 평상시에는 일반 호흡기 환자 및 결핵환자 등을 진료하고, 위기상황 시에는 감염병 환자 전담센터로서 전담하여 치료할 예정이다.

또, 이번 현장방문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 지정병원 해제 이후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 공공 보건 의료 협력 체제 강화 등 부산의료원이 시민과 함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과 공적 의료진 충원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코로나19 이후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의료원이 다같이 힘을 모을 것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국민의힘, ‘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지원 대책 토론회’ 개최

청소년 마음건강 보호 없이는 서울의 미래도 없다!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례연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위(WEE)센터와 마음건강센터 등 기존 시스템의 안정화와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의 상시운영을 목표로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날 전문자들의 공동된 의견이었다.

내대표는 “서울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지금, 다년간 학교 현장 안팎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봐온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사례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라며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전문자들의 유의미한 제언을 제도와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본인의 투신 현장을 생중계한 10대 청소년의 비극적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우울감 공유와 자살 모의, 모방 자살의 확산 등 최근 잇따른 사건들로 청소년들 깊숙이 자리한 어둠을 목격한 우리 사회는 지금 충격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10-20대의 자살률 4년 사이 40% 폭증, 최근 1년새 10대 극단적 선택 10% 증가 등 우울감, 불안장애, 자해와 자살생각 등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일깨우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이승미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축사를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모았으며 정지웅 서울시의원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위험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징후와 특성 및 예방

정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대안으로 일반군과 고위험군 각각의 단계별 정신건강 관리 전담체계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문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아, 서울시 학교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효과와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사업이 1년 단위 용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학기 초에 정착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올해 사업종료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윤형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완석 영남대학교의료원 신경정신과 교수, 이해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장진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신선호 서울시교육청 상담·마음건강팀 장학관, 이재영 중동고등학교 보건교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선별된 학생들의 즉각적인 전문기관 연계와 지역사회 의료·상담·복지 영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개별적·전문적인 정신건강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위원장 좌장 맡아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평택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

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발전방향성으로 예방교육 강화 및 디지털 시민교육, 사

후관리서비스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명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및 개선안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화, 의료교육으로 조례개정, 도내 여러 거점 센터 확충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보람 법무법인 비움 변호사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범죄 예방 교육,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AI경찰관 개발, 디지털성범죄 수사관의 정신관리, 디지털성범죄 상담사의 심리치로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성남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범죄 예방 교육,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AI경찰관 개발, 디지털성범죄 수사관의 정신관리, 디지털성범죄 상담사의 심리치로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은 복합피해 사례자의 통합적 대응, 피해자 저연령화 현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 해결, 인식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체의 제재 강화 및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재균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충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만식/기자

경남도의회, “태국서 소방·건축기술·실화 재훈련 식견 넓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브리핑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했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9명, 직원 4명 등 13명은 지난 4월 24일 ~ 29일, 4박 6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출장 기간 중 방콕 소방구조국과 방콕 시내 일선 소방서를 찾아 소방 분야 정보를 공유했으며 아세안국제건축박람회, CDH태국종합건설, CFBT실화재 훈련센터를 방문해 경남의 소방, 건축 관련 현황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출동 및 초동대응 방안에 대한 재점

검, 도내 건설업체 및 건설안전 관련 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효율적인 실화재 훈련을 위한 인력·시설 보완 투자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건설·건축 분야 친환경 공법의 도입 등 앞으로 경남의 건설·소방 정책방향과 운영의 다양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기공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했다”라며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잘 활용해 앞으로 경남의 소방 및 안전 관리 제도와 정책을 수립·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 의정활동 → 국내외교류활동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결과보고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현/기자

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7월 예정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15일 장성에 위치한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최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글로벌 전략물자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

성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이행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이 가능한 점, 대상 부지를 이미 확보한 점, 한국에너지공단·광주과학기술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점 등 장점과 함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한 핵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전라남도의회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전라남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마쳤으며, 지난 3월 제 369회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기관에 송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15개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중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지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회 부: 내선 (113) 부 동 선 부: 내선 (117)
 광고: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 부: 내선 (118)
 스포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과상생기업 윈윈(win-win)... 영등포구,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구가 4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및 상생기업의 취·창업 유도를 위해 '상생기업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에 기반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청년들은 최근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챗 GPT, AI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상생기업은 구인난 해결과 기업 홍보 강화의 기회로 삼는다.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웹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영등포구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이며, ▲디자인 전공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웹디자인 경력자 ▲웹디자인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 배움 교육 이수자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에 게시된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 후 신청서를 제

챗 GPT·AI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실무 교육, 성과 발표회 진행

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7월 10일 별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상생기업 취·창업 프로그램은 소셜컴퍼스는 당산점에서 실무 교육과 성과 발표회(해커톤 행사)로 운영된다.

실무 교육은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40시간 과정이다. 챗 GPT와 AI를 활용한 ▲웹디자인 제작 ▲상생기업 홍보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자기 PR 마케팅 등 청년들의 IT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성과 발표회는 7월 24일에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최되며, 수강생이 직접 제작한 상생기업의 웹페이지를 상생기업에 소개하는 취업 면접 형태로 진

행된다. 수강생이 제작한 웹페이지는 실제로 상용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피드백을 거쳐 상생기업 홍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은 취업 시 프로젝트 성과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강남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디지털 자산 금융교육'

21일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 400여명 대상 진행...온라인 강의 7회, 현장 강의 1회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청년 디지털 자산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지난해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제안을 따라 마련된 교육이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대상자는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400여명으로 온라인(ZOOM) 특강 7회와 현장 특강 1회로 구성했다.

온라인 특강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0분간 진행하며 금융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한다. ▲MBTI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6/21) ▲2030 현명한 금융생활의 시작(6/28) ▲돈 버는 경제적 사고 기술

(7/5) ▲경제뉴스와 내 삶은 관계가 없다?(7/12) ▲돈이 되는 투자의 7가지 핵심정보(7/19) ▲가상자산, 큰 흐름 짚어보기(7/26) ▲진화하는 가상자산 따라잡기(8/2)를 주제로 진행한다.

현장 특강은 8월 9일 7시 30분부터 120분간 강남역 인근 위플레이스 강남 2호점에서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협상형 금융카드 게임'이란 주제로 경제이슈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직접 체험하며 배워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이 디지털 자산 등 재테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금융 지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서초구, 배움과 취업 원하는 경력단절 구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지역 30세~59세 미취업 구민 600여명 대상 연 20만원 지원...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19일부터 접수

서울 서초구가 배움과 취업을 원하는 3050세대의 경력단절 구민 600명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평생 교육바우처를 지원한다.

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를 신청받는다.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는 구민들에게 경력개발 및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문·교양 등 평생 배움을 제공코자 원하는 시기에 희망 기관과 과정을 선택해 자유롭게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지난해는 4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 200명의 구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이용 대상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30대부터 50대 남녀 누구나 참여토록 확대했다. 또, 작년 2400곳의 전국 가맹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수를 올해는 2,745곳으로 300여 곳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부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지역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7월 초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 경력단절 주민이며, 관련서류를 구비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에 구는 다음달 중에 자격요건, 그 외 제외 대상 여부 등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평생교육 희망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강좌 수강을 신청해 연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본인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아실현을 통한 배움에너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서초구의 풍부한 평생학습자원의 활용을 계획하고 전문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으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가 3050세대의 자기개발과 취업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성동구, 중대형 건축물 및 공개공지 점검 실시

관내 중·대형 건축물 535개소 및 그에 딸린 공개공지 89개소 현장점검

서울 성동구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달까지 중·대형 건축물과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 중형건축물 404개소와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건축물 131개소이며, 이 중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개공지 89개소에 대한 점검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 폐쇄·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건축물 및 공개공지 유지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 용도변경,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단증축, 무단구조변경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 자진 시정토록 안내한다. 이에 대해 미이행할 경우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점검을 통해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 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

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 4곳을 불법 유형별로 나눠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절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

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ㄱ'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mg/l)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ㄴ'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mg/l)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ㄹ' 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했다.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미만 병·의원16곳 조사결과 불법업소 4곳 적발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도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청사 내 5020 고양 가와지뱀씨 홍보벽 설치 완료

한반도 최초 재배 뱀씨 '고양 가와지뱀씨'를 알리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일산서구청사 2층 가와지대강당 로비에 고양 가와지뱀씨 홍보벽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 가와지뱀씨는 한반도 최초 재배 뱀씨로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고양군 송포면 대화4리 가와지마을(현 대화동)에서 열두 톨이 출토됐다. 이는 5020년 전 신석기시대 한반도 농경문화의 기원이 고양 지역이고 한강문화권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가와지뱀씨 홍보벽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인 서구청 2층 가와지대강당 로비 벽면에 가로 5.75m, 세로 1.1m 크기로 제작됐

으며, 5000년 전 가와지뱀씨 탄생부터 현재까지 고양특례시 타임라인, 가와지뱀씨 역사적 의의와 관련 장소 등 가와지뱀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와지뱀씨 모형 조형물과 가와지뱀씨 캐릭터 포토존도 함께 마련해 가와지뱀씨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가와지뱀씨 홍보벽을 통해 시민들이 일산서구의 자랑인 가와지뱀씨에 대해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와지뱀씨와 가와지뱀씨의 역사를 계승하는 고양시 특화농산물인 '가와지쌀'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걷자 목감 7,000보 걷길' 스탬프 투어 호응 활발

시흥시는 6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걷자 목감 7,000보 걷길' 중 다섯 개 코스를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발걸음에 그치지 않고 이 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길을 홍보하고 건강 걷기를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스탬프투어는 지난 2일 논곡마을 걷길을 시작으로, 9일에는 양달천 걷길을 분홍색 깃발을 든 시민 50명과 함께 걸었다.

오는 16일에는 피물길 걷길, 23일에는 물왕호수 걷길, 30일에는 마산 걷길을 끝으로 탐방이 종료된다. 스탬프 3개 이상을 획득하면 신체활동 홍보물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상 속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리도록 목감동을 중심으로 7,000보 걷기 코스를 새롭게 발굴해 7,000보 걷기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 동네에 살면서 이 길은 처음 걸어본다. 이웃들과

함께 걷다 보니 새롭고 재미있다"며 미소 지었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누구나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걷길 안내지도 제작과 더불어 지도 안내판, 스탬프함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목감동 걷기문화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화성 뱃놀이축제 3일간의 여정 마무리...21만명 다녀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뱃놀이 축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린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가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8만 7천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총 2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다.

사전 승선체험과 시티투어는 일찌감치 매진됐고, 행사장에서도 승선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로 줄을 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야간 승선체험과 불꽃놀이는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의 큰 성공 이유는 올해 처음 도입된 야간 승선체험과 풍성한 야간문화공연으로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그간 쌓인 노하우로 보다 쾌적하게 꾸려진 축제장 역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우선 축제장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장 5개소를 확보해 운영했으며, 축제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해 편의를 제공했다. 더불어 민간기동순찰대를 포함 일일 210여 명의 주차요원을 배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차 관리를

가능케 했다. 행사장 내에는 지난 해보다 6배 넓은 면적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등 편의용품 대여 서비스도 늘리면서 시민들도 전보다 쾌적했다는 평이다.

해상 사고에 대비하고 행사장 안전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소방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축제를 위해 3일간 총 9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손을 보았으며, 화성시의 전 8개 산하기관이 축제의 성공을 도왔다. 더불어 농협은행 화성시지부, 화성상공회의소, 현대기가 자동차 남양기술 연구소



의 지원으로 시민 편의시설 조성에 힘을 더하여 성공적인 축제운영에 화력을 더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뱃놀이축제에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NH 농업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함께하는 100년 농협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6월 30일까지 경계선 지능인 시범사업 프로그램 참여자(가족) 모집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을 우선 선발하며, 프로그램 참여비는 전액 무료지만 종합심리검사비는 소액 기준에 따라 일부 유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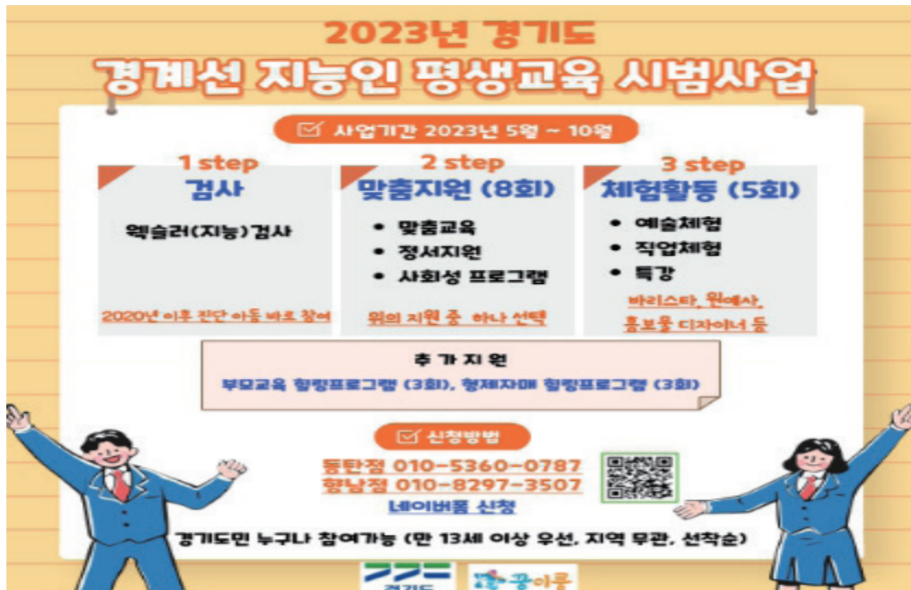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기관은 지난 5월에 공모로 선정된 화성 꿈이룸, 고양 아.루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이다. 이곳에서 종합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프

로그램, 문화 예술 체험, 직업 체험, 가족 상담·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4월에 제정했으며, 올해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른 기회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수원시, 수원 연고 6개 프로스포츠 구단 홍보·마케팅 부서장과 간담회

한국 제2부시장 주재, 수원 연고 프로구단 실무협의체 구성안 논의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에서 수원 연고 6개 프로스포츠 구단 홍보·마케팅 부서장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 연고 프로구단 실무협의체 구성안(안)'을 논의했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 FC·수원 삼성 블루윙즈(프로축구), Kt 위즈(프로야구), 한국전력 빅스톰·현대건설 힐스테이트(프로배구), 수원 KT 소닉붐(프로농구)의 홍보·마케팅 부서장이 참석했다.

수원시와 6개 구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프로스포츠 구단 지역 연고체 정착과 스포츠 문화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홍보·마케팅 부서장들은 "수원시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수원 연고 프로구단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구단과 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해서 스포츠 문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배구, 농구) 구단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경기공동모금회와 ESG 나눔기업 활성화 협약

지난해 1000만원 이상 기부한 용인지역 기업에 ESG나눔기업패 전달



용인특례시가 13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용인상공회의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공동으로 용인지역 33개 기업 및 법인에 '용인 ESG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ESG 나눔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며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연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ESG 나눔기업인 재단법인 서원재단, 뉴경기관광(주) 등 27개 기업이 참

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ESG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잘 만들어 후손들에게 잘 돌려주는 것이 큰 책무"라며 "코로나 시절을 겪어오면서 사회가 이끌어 가는 큰 힘이 된 나눔·돌봄 문화가 용인에서 확산해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해주시는 용인의 ESG 기업에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시는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남시, 백현카페문화거리 '특화거리' 지정

성남시는 백현카페문화거리 일대 상권을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 오는 6월 17일(토) 오후 1시 '비전공감 및 제막식'을 개최한다.

특화거리는 성남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곳으로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는 지난해 백년거리를 특화거리, 올 5월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이어 세 번째다.

백현카페문화거리는 거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녹지환경과 이색적인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모여 있는 문화 상권이라는 특화 요소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지정됐다.

이번 특화거리 사업으로 수변로 중심에 위치한 분수대는 '도시의 거실' 컨셉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분수대의 기존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형의 벤치 형식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해 방문객들이 수변로를 거닐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했다.

문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백현카페문화거리에 설치된 45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거리의 미술관' 컨셉의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백현카페문화거리의 점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팝아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방문객들은 마치 미술관을 거니는 것처럼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백현카페문화거리의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제막식이 열리는 이날에는 '백년여름 굿즈 증정행사'도 진행해 백현카페문화거리 내 매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산, 예코백 등의 굿즈를 증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특화거리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위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족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능통한 50여명 선발

인천광역시시는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스는 인천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위한 응원 및 지지 영상 제작·업로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모집해 사회관계망(SNS)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50여명의 서포터스들은 최연소인 중학생부터 청년 서포터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

다. 서포터스들의 활동은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내외 관심을 높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포터스 대표단(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축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포터스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인천으로 유치돼야 한

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함께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1000만 도시 인천에서, 인천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사회관계망(SNS) 홍보활동이 기대된다"며, "인천시도 초일류도시의 젊은이를 위해 반드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년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 개최

경기도 및 26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69명 참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3일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진작, 시·군의 성과향상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미래산업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최신 채용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소통·공감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를 통하여 상담 능력을 고도화하여 경기도민을 일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에도 '직업상담사의 날'(11월 중)을 맞아 더 많은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계획 중이



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협업방안

을 모색하며, 직업상담사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All care) 사업 실시

이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이천시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천시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면접준비, △면접진행, △면접사후관리 3단계에 걸친 면접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프로그램(▲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면접정장 무료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이력서 증명 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서비스를 중복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면접 불합격 시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직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9세 이상 ~ 39세 이하(고교졸업예정자 포함) 청년 중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구직자라면 누구나 잡야바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7월 3일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면접준비 단계에선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내 청년전담직업상담사와 "면접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 전략에 대해 상담 받고 맞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 받을 수 있다. 또한 4회 차로 운영되는 "취업특강"을 원하는 회사에 수강할 수 있다. 특강 주제는 취업트렌드 이해하기, 회사생활, 비즈니스 에절, 퍼스널 컬러, 면접스피치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진행되는 모의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면접에 필요한 요령을 익힐 수 있다.

2단계에선 면접진행 중에 필요한 면접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이력서 증명 사진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장대여"는 이천시와 협약을 맺은 정장 대여업체(아르코발레노 이천점, (주)스완제이 판교점)를 통해 재킷과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면접정장은 대여 시 (관내) 2박3일간 (관외) 3박4일간,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관외업체에 한하여 무료 택배로 대여 및 반납도 가능하다. "헤어메이크업 지원"은 이천시와 협약을 맺은 뷰티업체(에스에이치 뷰티)에서 남녀 누구나 헤어 세팅, 기본 면접메이크업 스타일링을 연 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은 이천시와 협약을 맺은 사진관(광전동 사진관)에서 이력서 사진 8매, 반명함판 1매, 사진파일 전송까지 지원해준다. 증명 사진 서비스는 1인당 최대 연 1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종 3단계에선 면접 합격 시 축하해피콜 실시하고 불합격 시에도 맞춤형 취업알선과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 받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취업 무관심 청년층에 대한 취업관심을 유도하고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취업 성공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천시는 이천시 취업역량 강화구두 등을 대어 받을 수 있다. 면접정장은 대여 시 (관내) 2박3일간 (관외) 3박4일간,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이성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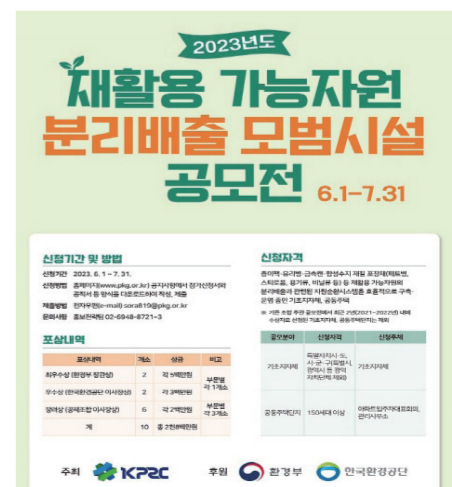
파주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모범시설 10곳 선정해 2,800만 원 지급...7월 31일까지 제출

파주시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주최하는 2023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 관내 공동주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며, 종이팩·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범시설은 총 10곳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2곳, 우수상 2곳, 장려상 6곳을 선정해 총 2,8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다



한영기/기자

경북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3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여성대회 개최

경북도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회장 김재원)는 13일 영천체육관에서 김호기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 최기문 영천시장, 김순택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재원 도 협의회장, 김영숙 여성회장 및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여성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여성대회는 진실·질서·화합의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여성회원들이 앞장서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시대 새로운 인적 자산인 도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그간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

동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유정자 포항시협의회 여성회장을 비롯한 13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금장 2명, 중앙협의회 표창 2명, 경상북도협의회장 표창 11명, 경상북도여성회 표창 4명 등 총 32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김재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씩씩한 봉사로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여성회원들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민화합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활동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경북 미래를 열어가실 여성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여성 역량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는 기초 법질서 지키기,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사회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어르신 목욕,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

경북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지역관광 혁신 모델'

어둠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문득 어둠을 찾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다. 별빛과 달빛이 얼굴과 눈 속으로 마구 쏟아지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어두운 밤하늘로 꿈과 일상을 찾아 떠나고 싶다.

영양군 수비면 '영양수비별빛캠핑장'과 이 일대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별따는 영양'이 내놓은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이라는 관광상품이 2023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혁신 이을 프로젝트에 3년 연속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사례는 처음이다.

밤하늘체험관광 프로그램인 '별볼일 없는 세상, 별볼일 많은 영양'이라는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도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혁신 이을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선정돼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기반형 일자리 밤하늘해설사 양성에 힘써 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2022년 '오지은하수투어 별빛사위체험'으로 브랜드링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상품 판매에 나서 지난 한 해 동안 6천500여 명이 영양 밤하늘의 별빛사위체험을 하고 갔다.

또, 지난해 9월에 오픈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실천 '불을

고고 별을 보자 청소년 STAR-PING 스쿨'을 운영해 1천5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갔다.

이 프로그램은 천문학과 '관광'의 모자를 씌워 전국 534만명 캠핑객 중 2040세대를 겨냥한 상품이다. 밤하늘 천체의 별자리 이야기와 별빛사위체험, 스마트폰, 별지시기, 삼각대를 활용한 나만의 별자리를 찍어보는 색다른 경험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높다.

영양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별따는 영양은 산골오지 자연생태특화자원인 '별, 반딧불이, 숲'을 활용한 오지은하수투어 별빛사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일대가 오지은하수투어 국내 최고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같은 상품을 지역콘텐츠기반 AR(증강현실)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야간관광 활성화의 하나로 흐린 날 밤에도 별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AR 증강현실앱을 개발하여 경북형 야간관광 체험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사이판, 광, 몽골, 일본 아치마 등 별빛투어 못지않은 인바운드 관광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영양수비별빛캠핑장에서는 산학연과 협력 이을 프로젝트에 선정된 관계자들, 컨설팅전문위



원들과 한국관광공사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소시엄 사업단 간 네트워킹 DAY가 개최됐다.

이번 네트워킹 DAY에서는 '2023년 이을 프로젝트' 소개와 사업단 간 협업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및 이을 프로젝트 우수사례인 (주)별따는 영양의 오지은하수투어 '별빛사위체험', 캠핑객 인건 참바우를 주상질리 숲 트레킹 등으로 진행됐다.

권한동 대표는 "밤하늘해설사의 지역기반 관광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특산물(산나물, 영양고추, 목공예)을 활용한 로컬식음여행, 밤하늘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북 북부권 산골오지의 지역관광 혁신을 이룬 점이 경북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밤하늘전문여행업으로 자리를 잡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글로컬 생태관광도시로 도약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 2024년까지 지위 유지 윤희경 군수, "유네스코 국제브랜드 활용, 글로컬 생태관광도시 청송만들겠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첫 재인증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현장평가를 통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3. 5. 18.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고이사회에서 재인증을 뜻하는 '그린카드(Green Card)' 부여를 의결했고, 이어 지난 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을 확정했다.

이로써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현장

평가 기간을 포함하여 2024년 12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는 청송군이 2017년 최초 인증 당시 받았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질유산과 문화유산의 연계, 지역주민 협력,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대처,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취지에 맞게 세계지질공원을 관리·운영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장일치로 재인증을 확정 지었다.

지난해 9월 청송군을 방문했던 당시 현장평가단은 "지질공원 발전을 위한 청송군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돋보였다."면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질공원 운영 목표와 지역주민 및 학교와의 협력에 대해 전세계 지질공원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사

례로 판단된다."고 호평했다.

특히 현장평가 위원장인 트란 탄 반(베트남)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에 부여하는 모범 운영 상(Best Practice Award)을 신청하라는 의견과 함께, 본인이 추천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청송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인증 평가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내년에 두 번째 재인증 평가를 받게 됐다. 두 번째 인증을 위해 청송군은 지질공원 가시성 확대,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인프라 조성,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기준에 맞춘 지질공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희경 청송군수는 "유네스코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글로컬(global) 생태관광도시 청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새롭고 다채로운 강좌가 풍성'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사업 1차 프로그램 개강

2023년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봉화군은 국비와 군비 예산 확보로 새롭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강좌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의 주민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2001년부터 교육부가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봉화군은 '평생학습 대안 2030'을 비전으

로 설정하고 미래역량, 미래직업, 미래인간, 미래세대, 미래치유라는 5대 추진전략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 대안 2030은 백두대간의 정중앙에 있는 봉화의 특색을 담아 거대한 백두대간의 줄기처럼 평생학습의 줄기를 형성해 2030년까지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개강한 평생학습도시 1차

강좌는 5개 분야 총 8개 과정이 개강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4차산업역량강화분야에는 '드론조립및비행강사양성과정'과 '1인미디어취.창업과정', 청년희망일자리분야에는 '하브루타지도사양성과정'과 '슬로리딩독서지도사양성과정'이 개강 예정이며 노년희망일자리 분야에는 '실버놀이지도사양성과정'과 '유티브크리에이터 영상촬영전문가과정'이 개강된다.

또한 시민의식 고취 및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통수사학(말하기)전문가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봉화치유숲분야로 '생활속영양과정'이 개설되어 군민에게 학

습을 통한 심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평생학습가족캠프, 평생학습도시산포시 등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2차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될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봉화군은 2023년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 평생학습체계에 기반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실시

의성군이 오는 7월 7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의성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제안사업의 유형으로는 일반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일반공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공모가 있고,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제안되는 자치계획형사업이 있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의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최종 편성된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에 주민 제안사

업으로 95건(21.2억원)이 접수되어 최종 49건(6.4억원)이 선정,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김의성초등학교 골목길 벽화그리기(30백만원) △단촌면'빨간장날'(20백만원)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44백만원) △청소소년밴드연습실 인프라 구축(35백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다 같이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주... 경주시, 유치염원 배지 캠페인

경주시 전 직원 2000여 명 '2025 APEC 경주' 배지 착용하며 유치 시민 희망 메시지 동참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범시민적 참여를 돕기 위해 전 직원 대상 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 근로자 2000여 명은 이날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염원을 담은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에 나선다.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요도는 물론 경주시가 선봉에 나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수치상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이자 국제

회의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위해 경주시 소속 직원들이 '2025 APEC 경주'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경주 엠블럼을 담은 이 배지는 단순한 심볼에 머무르지 않고,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앞당기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도시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윤태용/기자

영주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영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기대



경북 영주시가 오는 7월 14일까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사업을 제안·선정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신청 대상사업은 2024년도에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다.

사업 제안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주시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영주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도 참여

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온라인 신청(시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시청 기획예산실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실무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과 시민의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게 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된다.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영주시에 예산에 담아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학생문화센터, 퇴근 후 예술해요. 선생님들의 뜨거운 배움의 열정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오는 6월 27일까지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2기 예술 동아리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예술동아리 교사 직무연수를 10년 이상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예술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욕망과 갈증을 해소하고 예술동아리 및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술동아리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만족도 결과 조사와 수요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들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강좌를 개발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에서도 총 3개의 신규 강좌(합창 발성 및 지휘, 타악 앙상블, 음악 수업용 반주법)를 개설했다.

이번 연수는 예술동아리 지도교사의 역할을 강화해 감성을 키우고 배움을 즐기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예술교육 및 예술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동아리

대구학생문화센터, 2023년 제2기 예술동아리 교사 직무연수 운영



를 지도하는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1일 3시간씩, 총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 과정으로는 음악,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의 강좌가 개설되는데, ▲음악

수업 및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한 타악 앙상블 기초 ▲기초기를 다지는 지휘 클래스 ▲즐거움 음악 수업을 위한 기초 반주법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한 아름다운 플루트 기

초 등 음악 분야 4개 강좌와 ▲문자로 디자인을 창작하는 캘리그라피 기초 ▲속전속결 웹툰 드로잉 등 미술 분야 2개 강좌가 운영된다.

연수에 참여했던 박00 교사는 “예술동아리를 담당하면서 미술 관련 직무연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00 교사는 “사물놀이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심화 과정이 개설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호기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은 “학교 예술교육의 질은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 역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술동아리 교사 직무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울진군, 2023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 성황리 개최

울진군은 지난 10일 울진을 연호공원 일대에서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군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여성가족부와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댄스와 밴드공연 부문에서 11개 팀이 참석했고, 특별 초청 무대와 오케스트라 합주팀의 공연으로 오프닝을 풍성하게 장식했다. 체험 부스는 10개의 비공인 동아리 및 지역단체(Wee센터, 청소년지킴이)가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공연의 사회는 2명의 청

소년이 직접 진행을 맡아 청소년들의 호응도를 높이며 청소년 중심의 의미 있는 축제로 발돋움 했다.

올해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는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울진을 연호공원에서 총 3회(1회 6월10일, 2회 7월15일, 3회 9월9일) 개최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와 열정을 발휘하며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함께하는 생활문화, 영덕의 일상이 되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 참여 동호회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6월 26일(월)까지 영덕생활문화 역량강화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에 참여 동호회를 모집한다.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는 영덕생활문화 동호회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영덕군을 거점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3인 이상의 생활문화 동호회이다. 다만, 동호회 구성원은 영덕 군민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학생동호회의 경우 전담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발된 동호회에게는 각 팀당 최대 200만원 내외의 강사비, 재료비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이메일 및 예주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를 통해 1차 선정된 동호회는 컨설

팅 후 최종 결정,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동호회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성장한 모습을 '우다다다' 교류회'에서 공연, 전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우다다다' 파워업'사업과 '우다다다'교류회'를 비롯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문화 동호회 발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탄한 지역 생활문화 기반을 다져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사업 '모두의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생활문화

활동 (생활문화 활동 확산, 생활문화 특성화,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 4월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이란 사업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예천에 살어리랏다~"

도시민 대상 25일까지 3가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예천군은 25일까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기 참가자 3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장 견학, 텃밭 가꾸기, 관내 축제 및 볼거리 탐방, 귀농·귀촌 교육 참석 등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원주민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동(洞) 지역에 거주 중인 1인 또는 2인 가족 도

시민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농촌 정착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뿌리산업 고부가가치 생산 지원...국비 100억 확보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공모 선정



구미시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중 하나인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5년간 총사업비 148억원(국비100, 도비 14.4, 구미시 22.4, 성주군 11.2)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미시와 성주군에 마련하고, 뿌리기업들의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시는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제조공정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장비 구축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공정지원 및 평가 지원, DX 플랫폼 활용지원,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산업 공정별 대표 모델 구축, 산·학·연 역량 교류회 등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뿌리제조생태계 활

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 14개 분야 중 금형 부분의 거점지로서 구미시와 열처리 부분 중심지로서 성주군이 함께 지역 뿌리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5년 준공될 도시재생혁신지구 에'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제조 공정혁신 DX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주관기관으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참여기관으로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시는 도내에서 뿌리산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이번 선정으로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뿌리산업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DX 기반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전환 체계를 마련하고 이는 지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2023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성황리에 마무리

남녀노소 자신만의 바캉스룩으로 점촌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어



(재)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6월 10일 '2023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3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는 문경시 점촌지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의류나 잡화상점의 활성화를 위해 (재)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2021년부터 기획, 추진한 공모전형 축제이다

여름 바캉스룩이 주제인 이번 '패션왕을 찾아라'는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30명이 응모했으며, 6월 9일~6월 10일(2일간) 국민영양 및 특설무대에서 예선과 본선 런웨이를 각각 진행했다.

본선은 10일 오후 6시부터 외부전문사위원이 함께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인기상(1명), 참가상(16명) 등 모든 참가자에게 총상금 480만원을 수여했다.

2023년 문경 패션왕의 대상은 행복상점가에 위치한 더 화이트에서 흰바지를 구매해 구안포 여대생 바캉스룩을 표현한 우예름(25세)씨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내가 제일 잘나가"라는 컨셉으로 문경중앙시장 파트너에서 데님셔츠를 구매하여 멋 부리고싶은 40대 철부지를 표현한 김수완(44세)씨가, 은상에는 문경중앙시장 파트너에서 점퍼, 바지 신발을 구매해 화이트 데일리 바캉스룩을 표현한 남선하(40세)씨가 선정됐다.

동상에는 행복상점이 CNA에서 구매한 에코백으로 안전요원 컨셉으로 컬러풀 히어로를 표현한 김형택(33세)씨가, 인기상에는 행복상점이 CNA에서 가방과 안경을 구매해 시원한 여름 옷차림으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컨셉을 연출한 이선재(8세)군이 선정됐다.

본선 진출자인 21명의 참가자들은 끼와 재능을 펼치며 무대를 즐겼고 관객들의 환호성과 더불어 성황리에 무대를 마무리했다.

(재)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신현국 이사장은 "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상권활성화가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경이 패션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단포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천시는 지난 13일 시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단포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동수 부시장, 김홍석 행정지원국장, 권기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의원, 체육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다.

단포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2월에 착수해 현황조사, 사업추진 및 재정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제성 조사와 사업비 추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7월 최

중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이용수요와 전국대회 개최 가능성, 시설의 규격에 따라 달리 분석을 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 규모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설동수 부시장은 "향후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새희망, 새영천

영천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최기문 영천시장은 13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 대비를 위해 관내 하천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상황 및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 현장은 고령면 대의리에 위치한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장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남면 안천리의 안전 수해복구 현장 등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복구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 시 비상근무조 편성, 주민연락

체계 구축, 대피장소 선정 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며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최기문 영천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위기대처 능력 제고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반식/기자

경남농업기술원, 블루베리용 ‘개화기~수확기’ 최적 양액(養液) 개발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와 소과류 등은 겉질째 먹을 수 있는 간편함과 건강 기능성까지 챙길 수 있어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베리류 중에서 재배면적이 큰 작목은 블루베리로 재배면적이 2010년 45ha에서 2021년 217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수산업 생산액 기준 8위를 차지하는 주요 과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국내 과일 소비 추세에 맞춰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 평가회’를 산청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관계자 및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기술교육, 블루베리 품평 및 현장견학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농업기술원은 ‘23년까지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지, 시설하우스의 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개화기에서 수확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블루베리 양액(養液) 조성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발한 양액을 이

경남도 ‘베리류 다수확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 평가회’ 개최

용하여 가온시설 내에서 용기재배 했을 때 수체생장이 좋아지고 착과량이 많아도 강한 나무세력을 유지할 수 있어, 관행 비가림재배 대비 수량이 20% 증가하였다.

이 양액을 공급하면 심은 후 성과기 수량이 도달하는 기간이 관행 대비 2~3년 빠르고 품질이 균일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양분공급 뿐만 아니라 관수를 자동화하여 작업 노동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양액재배 기술은 몇 가지 비료를 물에 녹여 제때 공급하는 기존의 관비 양분관리 방법과 달리 시기별 블루베리 생장에 필요한 비료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때 블루베리 생육에 적합한 전기전도도(EC)와 수소이온농도(pH)도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노치원 과장은 “현재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주로 블루베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도내 베리류 수요 증가와 면적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청송군,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청송군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에서 현안 대응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는다.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는 산림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산림분야 7개 평가지표(산림재난 대응, 자원조성 등)의 실적에 우수한 기관에 대한 ‘실적 우수기관 부문’과 성과제고를 위한 ‘현안대응 우수기관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산림청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 지난해 실적 평가를 평가한다.

청송군은 2022년 합동평가 지표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산불감시원 운영과 지속적인 산불예방 방

보로 산불감시를 철저히 하고, 2022년 경상북도 지상산불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노하우를 실려 산불 발생(1건 0.69ha)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산림 54ha를 대상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산불진화행거를 활용한 예찰에 총력을 기울인 실적 등을 인정받아 현안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 등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몰타 국영방송 ONE TV가 주목한 안동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금소마을 촬영'

'가장 한국적인 마을을 찾아 전통문화 챌린지 진행'



사)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몰타 국영방송인 ONE TV에서 일하면 금소마을을 찾아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한다고 전했다.

몰타는 남유럽의 작은 섬나라이며, ONE TV의 ‘HazZard’는 전 세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몰타 최고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다.

ONE TV에서 이번엔 ‘안동포’를 생산하는 가장 한국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금소마을에 매력을 느껴 여행콘텐츠 전문 브랜드 ‘길과 마을’과 협업하여 금소마을에 대한 촬영을 계획했다.

먼저 13일은 “안동포”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고, 금소마을을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동포를 활용한 거름(커피필터) 만들기, 대마 계추리로 만든 달걀불을 뒤워 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14일은 금소마을에서 30년간 양조장을 운영했던 인제문(76) 명인을 통해 햅쌀씨름을 활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양조하는 막걸리를



함께 만들고 시음하면서 안동의 전통음식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촬영내용은 몰타에서 오는 10월~12월 가장 시청률이 높은 골든타임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안동 촬영을 이끄는 ‘길과 마을’ 김관수 대표는 이번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몰타 현지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인바운드 상품을 개발하여 2024년부터 몰타 및 유럽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방호 사)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 보존회장은 “안동포가 수의로만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몰타에서 가장 매력적인 전통문화로 소개해주고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안동포를 활용한 체험상품 및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안동포를 널리 알리고,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마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버스 타고 오감만족 군위여행,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티투어 테마노선 본격 운영

2023년 7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에 맞춰 군위군 시티투어 테마노선 운영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관광협회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7월 1일)에 맞춰 7월부터 12월까지 월 8회 대구시 투어에 군위군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7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군위삼촌석굴, 인각사, 화본역, 한밤마을, 삼국유사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테마코스는 군위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본역, 한밤마을, 삼국유사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전통 5일장인 군위전통시장, 사라이야기마을, 군위댐, 일연공원 등을 연계한 3개의 노선으로 월 8회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체험형 코스는 군위 전통 5일장에 맞춰 운영된다. 3일, 8일에 열리는 군위전통시장은 시골 5일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계절마다 볼거리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백종원이 다녀가 유명해진 ‘시장닭발’ 등 전통시장만의 먹거리가 가득한 이기도 하다.

군위읍에 위치한 사라이야기마을은

역사와 문화관광,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테마노선에는 전통 떡메치기 체험을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관련한 전시조형물과 체험교육콘텐츠, 물놀이장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투어형 코스에서는 국보 군위삼촌석굴,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를 포함하여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공원, 한밤마을, 화본역 등 현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을 통해 한층 더 깊은 군위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계절의 변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혜원의 집(영화 리틀포레스트 촬영지), 친환경 녹색매인 군위댐과 일연공원, 창평지친환경생태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위군 시티투어 이용객 설문조사 등 군위여행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 후 군위군 테마노선을 확정지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군위군 테마노선 이용요금은 성

인 10,000원, 중·고생 8,000원, 경로/어린이 6,000원이며 대구시투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6월 15일부터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다.

김동우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도심과는 다른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군위군 시티투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군위군을 방문하고, 군위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 대구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의병장 신돌석 장군 순국 115주기 송모제향 봉행

평민 의병장 태백산 호랑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뜻 기려 김광열 군수, “송모제향, 호국문화 가치 재조명, 의로운 뜻 후손 전달 계기 되길”

영덕군과 신돌석 장군 송모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장군 신돌석 장군 순국 115주기 송모제향’이 지난 13일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봉행 됐다.

이번 송모제향은 장군의 후손들과 송모위원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으로 김광열 영덕군수, 아헌관에 이상업 신돌석학 합장, 종헌관에 서재찬 영덕경찰서장의 제관 아래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됐다.

의식행사는 제향행사에 이어 송모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신돌석 장군과 영릉의병진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연과 추모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송모위원회 권호준 위원장은 “신돌석 장군의 송모제향은 장군의 숭고한 뜻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나라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장군의 삶에 대한 오늘날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송모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밑바탕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라며, “송모제향을 통해 영덕군 호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로운 뜻을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돌석 장군은 축선면 도곡리에 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항일운동에 맹위를 떨쳐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한 항일 의병장으로,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 됐다.

영덕군과 송모위원회는 항일 구국 활동을 위해 청춘을 바친 신돌석 장군을 기리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용맹한 기상을 선양하기 위해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송모제향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영덕군은 대한민국 해군의 1800t급 잠수함 신돌석함 부대와 지난 2017년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신돌석 장군의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함께 기리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동부산·서부산 색깔 담은 관광콘텐츠 운영

2023 '권역별 특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산과 서부산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부산과 서부산 특화 프로그램인 펍 크롤링 투어와 피크닉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부산 관광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동부산의 수제맥주와 서부산의 자연·생태를 적극 활용해 '펍 크롤링 투어'와 '산들산들 피크닉'을 각각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동부산 펍 크롤링 투어는 술집을 뜻하는 '펍(Pub)'과 기어 다니다라는 뜻의 '크롤(Crawl)'의 합성어로, 하룻밤에 대어섯 군데의 펍을 돌며 맥주를 즐기는 형식의 투어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990원에 크롤링 티켓을 구매하면 동부산에 위치한 주요 펍(툼브로이, 주든, LA바엔그릴, 아울앤부시켓, 프라하993, 고릴라브루잉) 중 세 군데에서 최소 20%,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다. 상시로 운영되는 이번 투어 외 월 1회 톼브로이 양조장 투어도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산 산들산들 피크닉은 부산의 다양한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외 프로그램이다. 서부산이 지닌 큰 장점 중 하나

인 자연을 내세워 공원 내 마련된 피크닉존, 포토존 등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한 50명 대상으로 피크닉 패키지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플로깅(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 plogging)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6월 24~25일에는 17일에 개최되는 '2023 위드 펍스타'에 이어 반려동물 친화적인 팻투게터 회차로 진행돼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동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체험 부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동부산 펍 크롤링 및 양조장 투어는 네이버에 '브루어리 탐험대'를 검색하면 라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서부산 산들산들 피크닉은 비짓부산 누리집(이벤트&신문)에서 무료 사전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유유원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동부산과 서부산이 각각 가진 장점을 최대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권역별 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 관광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화순군의성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의기투합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화순군은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와 경북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 시절부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두 부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각 지자체 직원 4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

특히 의성군 직원 10여 명은 6월 9일 전남 순천 정원박물관 견학 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로 방문하여, 두 지역 간 상호 협력의 뜻을 다지고 서로

의 발전을 응원하기로 했다.

김승오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서로의 지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형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거리는 멀어도 이번 상호기부로 두 지자체 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직접 챙긴다...산업부 장관 면담

이 시장, 신병 치료 중에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직접 만나 특화단지 포항 지정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신병 치료 중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지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3일 이강덕 시장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포항 지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광복 회보를 이어오고 있는 김경재, 김병욱 지역구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에 힘을 모았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양극재 생산 세계 1위 도시로 글로벌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이 소재하고 있고, 리사이클링부터 양극재까지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이 구축된 세

계 유일무이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까지 14조 원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확정돼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양극재 연산 100만 톤, 매출 70조 달성으로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기술 패권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가 7월 초 예정됨에 따라 이날 행보를 시작으로 며칠간 국회와 정부 기관을 연이어 방문하며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임을 꾸준히 어필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원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대량 생산시설이 집적된 포항

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대량생산과 소재 공급 요충지로 이미 양극재 국내 최대 생산량인 15만 톤을 생산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양극재 수요량 605만 톤의 16.5%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포항은 양극재 생산에 있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황산코발트, 수산화리튬, 전구체 생산을 국산화해 국내 양극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영일남항을 이용한 원소재의 수출입이 쉽고 포스텍, 가속기 등 연구와 인력양성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산업육성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인 배터리첨단산업과를 신설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러한 포항이 가진 장점과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POBATT) 개최 등 지역의 노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의 굳은 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대규모 기업투자의 광복할 성과와 더불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이차전지 글로벌경쟁력을 확실히 다져왔다.

윤태용/기자

경북 'super 화공 포럼'국회에서 첫 개최

경북 미래 발전 견인할 시책 발굴의 장 마련

2018년 11월부터 경북도가 시작한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에서 국내외 저명한 강사 225명이 강의한 가운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슈퍼화공포럼'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기존의 화공 발표자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화공의 연속성 확보와 대한민국·경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회에 '신성장동력 글로벌 트렌드와 경북전략'이라는 주제로 5명의 전문가 주제·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경북도 '화공'에서 발표한 특강 강사들이다.

산업연구원장을 지낸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 이형민 투인인베스트 총괄 대표, 김필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 안성렬 경북 미래전략기획단장 등이 패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강사진들의 견해를 토론회를 통해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슈퍼화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좌장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13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슈퍼화공포럼의 취지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경북이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모여 새 대한민국·경북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이라고 설명했다.

화공 20회에 '경북지역 혁신성과 산업육성전략' 주제로 발표한 장지상 교수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에서 새 소재부품 연구와 바이오의 경우 해외 소부장 기업 유치"를 제안하면서 "경북이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원자력소수 분야의 기술표준화를 주도하자"고 말했다.

또 화공 156회에 '경제사상이 이견회'를 발표한 동아일보 허문명 부국장은 새 한일관계가 구축되는 환경에서 "디램 분야에서 압도적 1위인 삼성과 SK가 세계시장의 73%를 차지할 정도인데, 여기에 일본의 소재 장비 재료 회사들의 경쟁력까지 합쳐진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윈윈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경북도의 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이라면서 "글로벌한 시선으로 지평을 넓혀 외국, 특히 일본과의 협업모델을 찾아보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61회 화공에서 '2020 글로벌 신기술트렌드'를 발표한 이형민 대표는 "경북의 그린바이오 산업과 디지털농업 혁신을 위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와 더불어 문경·예천 디지털농업타운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148회 화공에서 '메타버스와 사용자 관점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네이버 김필수 실장은 "경북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대면 이슈와 케어 인력의 한계점을 고려해 주치의+웰니스 케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 구축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성렬 경북도 미래전략 기획단장은 "경북이 국가산단, 혁신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다양한 방식의 신성장판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소수,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 및 포항·상주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의성의 세포분양 혁신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발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슈퍼화공포럼은 10개 주제로 매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년 에 한회 화공 특강 발표자 모두를 경북도청에 초대하는 '그랜드화공페스타'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청 각 실국 및 산하기관과 전문가들이 만나 토론하고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공론장과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공을 통해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슈퍼화공포럼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을 국회가 적극 서포터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슈퍼화공포럼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시한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회에서 7월에 개최한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상황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요인 사전 차단

봉화군은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해 관내 전업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점검은 6월 12일부터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산란계 밀집단지외 3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가는 군에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방역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안)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물-산란물 기

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 점검기간(8월 1일~9월 15일) 동안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2023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9시군에서 75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봉화군의 전업규모 가금농가는 총 24농가로 산란계 10농가, 육계 12농가, 육용오리 2농가이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



안 가금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밥쌀용 벼 대체 '가루쌀' 보급 앞장 귀농인 화제

밥쌀용 벼 대체 작물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확산을 장려하는 가루쌀 종자 보급에 앞장선 귀농인이 있어 화제다. 도에서 직장생활 하다 고향으로 귀농한 신동춘 곡성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 2천ha 가루쌀 재배면적 확보에 필요한 법씨종자 부족분 32톤, 609ha분을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급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찹쌀가루로 만들어 빵·이유식 등 가공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쌀로, 밀가루 대체 가능 작물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

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만 2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으로 2002년 고향인 곡성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 남들과 같은 작목과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생산해도 판로는 없고 노력에 비해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었다. 그후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과 접목해 밀 재배 불모지인 곡성에 벼를 심을 논에 이모작으로 밀 50ha를 재배했고 이듬해인 2018년 밀을 수확한 논에 처음으로 가루쌀 1ha 재배에 도전했다.

주변에선 재배 기술도 정립되지 않고 판로도 불확실한 가공용 쌀 재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첫 해 수확량이 10a(300평)당 540kg에 달했다. 일반 벼 545kg과 비슷했지만 3년이 되던 해 수확량은 580kg으로 늘었고 가격도 일반 쌀 7만 5천 원/40kg보다 20% 비싼 9만 원에 달했다. 2022년 첫 재배 당시보다 30배가 많은 30ha까지 확대해 약 150톤을 생산했다. 판로도 안정적이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제과협회 등 쌀병 경진대회, 스타벅스와 유명 제빵업체 등에 납품했

신동춘 곡성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부 부족분 종자 32톤 공급

고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5개 식품업체에 원료용 쌀 15톤을 공급해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정부가 수입 밀을 대체하고 국산 쌀 가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가루쌀 보급 종자를 공급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올해는 가루쌀 생산단지 72ha를 조성해 현장 기술 보급과 안정적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8개 시군 13개소에 가루쌀 단지에 교육·컨설팅, 농기계 구입 등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730ha의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남원추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한 발짝 다가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의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 개강식이 6월 13일 농업인상생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역먹거리사업에 뛰어난 경영 실무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홍보마케팅 및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받는 과정으로, 새로운 남원추어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질과 학습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강식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을 비롯한 잠재적인 남원추어 CEO 후보 11명과 추어관련 업체 경영진 6명이 후견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CEO 아카데미의 주요 교육 과정과 목표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 개강식 성공적 개최



교육은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지역먹거리정책의 이해와 사례, 온라인 마케팅의 트렌드 및 방법, 외식 프랜차

이즈 성공사례, HMR 최근 트렌드 동향과 상품구성, 교류분석을 통한 소통능력 향상, 협업을 위한 팀빌딩 등으로 구성돼

총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강식으로 남원추어사업 관계자들 간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의 기회가 되어 유익한 자리가 됐으며,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비즈니스 관련 전략과 실무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영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의 교육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역량을 키우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청년 CEO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향후 남원시 추어식품산업과 지역먹거리 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정원은 전략적 개념, 미래도시 바꿀 산림청 더 커져야"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주최 제1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합회 열려

노관규 순천시장이 산림청이 주최한 제1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합회에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 화석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로 산림청을 꼽으며 산림청의 위상 승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50년 압축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을 바꾸기에, 대도시는 몸집이 너무 크고 중소도시는 대도시 베끼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도시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5년 전, 오랜 고심 끝에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중앙부처를 찾을 때 이를 받아 들여준 곳이 산림청이었다. 지금 순천은 수도 서울을 포함해 정원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도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면서 일찍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본 산림청의 예안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원이 문화로 정착된 나라는 대부분 제국을 이루거나 꿈꾸었던 나라였고 그 지도자들은 가드너였다. 이는 영원이 철학적 눈높이와 인문학적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대단히 전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시장은 "두 번의 박람회를 거치며 현재 산림청 위상으로는 전략적인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고 녹색도시로 바꾸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략을 새

주력했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환경·사회가 어우러지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종합행정을 펼쳐 가겠다"라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녹색심터 정원이 깃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정원도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차 떠난 유럽 출장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으며 연합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노 시장의 발표를 유심히 듣고 정원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조재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정원박람회 관람객이 벌써 470만 명이 넘었다. 정원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만 1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순천시가 부럽다. 노 시장님의 열정이 대단하다"라면서 "산림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도 "산림청 소속 직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진심어린 반응을 전했다.

올해로 17회차를 맞은 산림연합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 산림부서장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어 온 행사다. 올해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연합회에는 103개 시군에서 약 650여 명이 참석했다. 226개 시군 중 모범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와 진주시, 괴산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롭게 수립하고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해 나갈 산림청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부처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산림청의 지혜와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연합회를 마련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산림청이 국토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한편 노관규 시장은 앞선 5월 31일에도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한 서울시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사로 나서는 등 정원으로 도시를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 '풍란(蘭) 전시회' 개최

6~8월까지 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서 열려

멸종위기 지정식물 1급인 '풍란(蘭)'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남 함평군에 마련됐다. 함평군은 "'2023년 풍란(蘭) 전시회'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수려한 색상과 기품있는 향기를 가진 나도풍란과 풍란 등 4천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나도풍란'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난초로, 전남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

재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풍란'은 아시아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착생란으로 전남과 경남 해안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며, 향이 매우 진해 원예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멸종위기 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한 '제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동·식물) 그림그리기 전국대회'가 오는 9월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 '화합과 단결' 나무 심다

나주시, 민선 8기 '제6차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나주시는 전남 전라남도 산림자연연구소에서 민선 8기 '제6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소 내 치유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정례회는 도내 22곳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사·군 간 현안 소통과 상호 교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립합창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회의는 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 인사말, 윤병태 나주시장 환영사에 이어 기념품 전달, 나주시 홍보영상 및 수범사례 발표, 정책 건의 사항 의결 및 현안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2천년 역사문화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 나주에서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함께 6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

다"며 "22개 시·군이 뿌리가 연결된 나무처럼 단단한 협력 체계를 갖춰 인구·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의 강점을 살려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회의의 안건으로 '국유재산 교환·처분 관리기관 일원화'(여수시), 'BF인증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개선 건의'(고흥군), '사·군 공동 의전 업무 매뉴얼 마련'(강진군) 등이 제안·논의됐다. 제안된 안건은 전체 사·군 만장일치로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에 건의키로 했다. 나주시는 수범사례로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로 구축되는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에 기반, 365일·24시간 공백없이 실시간 악취 발생 모니터링에 시각화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24시간 관제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돼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에 설치된 측정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악취 데이터를 수집한다. 악취로 인한 민원 전에 악취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사업장에는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생돼 자체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한다. 나주시는 회의 이후 9번째 내려온 남파고택 강정숙 중부의 전통 한정식과 대표 먹거리인 나주곰탕을 준비해 남도 식문화 1번지 다온 맛을 손님들에게 선보였다. 오찬 이후에는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간 화합·단결을 상징하는 수목이 나주시 산포면 소재 산림자연연구소에 뿌리를 내렸다. 기념식수 수목은 '붉가시나무'다. 탄소저장능력이 가장 탁월한 상록수종이자 조선시대 왜란 때 적선을 깨뜨리는 대포 무기인 '대장전'의 재료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나무뿌리에는 각 시·군에서 보내온 흙이 채워지며 사·군 간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농생명산업의 비상을 위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출범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인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2014년부터 농진청, 식품연 등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국가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협의체 수준의 기구 구성, 발굴과제의 범위 및 규모 등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2022년 하반기 민선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높은 수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혁신성장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

이후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에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

농생명기관간 협업 및 민선8기 농생명산업수도 동력 마련



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출범식을 열게 됐다.

새 위원회는 '농생명 융복합 과제 도출', '연구성과물 공유를 통한 혁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확대'를 개편 방향

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존 협의체의 6개 분과(중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첨단축산, 첨단농업)는 농생명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새만금농생명, 푸

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분과는 ▲기존 농생명 부문 간 융합 강화, ▲새만금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벨트 구축과 말산업특구 활성화의 아젠다를 중점 논의·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총괄기획위원회에서 라승용 전 농진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과 실무를 대표하고 이끌어갈 대표도 선출됐다.

향후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참여기관 간 농생명바이오분야 대형사업 발굴, 혁신형 공동 R&D 추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농생명산업 산.학.연.관 소통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상승의 기운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귀기울여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청소년참여위원회 의회 활동 체험

“지방의회 역할 이해, 민주 시민 역량 제고”

강진군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 13명의 청소년이 지난 12일 강진군의회를 방문해, 291회 제1차 정례회를 참관하고 의회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의회 방문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정례회를 참관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에 이어 의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눠 모의 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의회 체험을 하는 청소년 한명 한명을 직접 안내하고 정례회 후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여위원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회에 관한 궁금했던 사항을 질

의 받는 등 청소년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2~3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으로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는 12월까지 ▲정책발굴 역량교육 ▲선진지 견학 ▲의회방문 ▲정책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윤호/기자



신안군 제9회 섬 병어축제 성황리 마무리

신안 병어의 우수성을 브랜드화 하다

신안군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지도읍 신안전갈타운에서 개최된 '섬 병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섬병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날 신안 병어를 맛보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어획량 부족으로 값이 크게 오른 병어를 1인당 1마리 한정 30%를 할인 판매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고, 병어 회무침 시식회·수산물 깜짝 경매·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제9회 섬 병어 축제'는 5,700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병어와 말

은 수산물 판매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바다에서 육지로 힘차게 튀어 오르는 병어를 형상화한 병어 조형물 제작식을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수산물인 병어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가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청해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수산물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병어의 가치를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신안 병어를 찾을 수 있도록 신안 병어의 우수성을 브랜드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마을방송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진도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전 마을에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기존 마을방송 방식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기와 유선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진도를 시가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마을방송 청취가 곤란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로 청취할 수 있고,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어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주민은 스마트마을방송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하면 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한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정보통신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정보 전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어형 참가자 모집

6월 30일까지 신청, 전북·광어 등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진행

완도군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반기 프로그램(귀어형)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어·귀촌 실행 및 정착 단계에 있는 도시민 및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융복합 기술 전수를 통해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기존의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다르게 전문 기술 전

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완도군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완도군 약산면의 어두리마을에서 주낙 꾸미기, 새우·광어·전복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자격으로는 만 18~55세 미만의 타지역 거주자 또는 전남으로 귀어·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귀어·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사전 수료)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 창업, 취업 등을 위해 희망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자에게는 거주 공간, 귀어·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체류 기간별 귀어·귀촌 교육 시간은 최대 90시간까지 인정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형으로는 농

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어인의 집, 어울림 마을을 운영하고, 단기형으로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있고 다양한 귀어·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화순군, 영농4-H회 과제학습포 손모내기로 전통 체험

손모내기 행사로,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펼쳐

화순군은 영농 4-H 회원의 전문농업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 활동으로 지난 6월 12일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있는 과제학습 포에서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영농 4-H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농사 공동체 문화 체험을 위한 손 모내기가 일부 진행됐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과제학습 포의 스마트 농업기술(GPS 측조시비이양, 드론 공동방제) 뿐만 아니라, 손모내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수확물의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과정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브랜딩 학교' 교육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과제학습 포 운영을 통해 개인 농장에 도입할 과제를 충분히 학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영농 4-H 회 유희열 회장은 “손 모내기 전통 체험으로 소중한 자리가 됐으며, 수확물은 쌀 나눔 기부활동을 통하여 4-H 이념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8일 문척면사무소에서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거리상의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마을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세무 관련, 지방세 관련 고충 사항 등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이다.

구례군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업무담당자도 마을세무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주민은 현장에서 행정

업무 지원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에서는 임채동 마을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처리 방법과 궁금증을 해결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는 세무 현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와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6개 종목 강릉시
일원에서 열려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강릉 개최

지난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열기를 이어갈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 함께 뛰는 행복제일 강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도단위 체육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열기를 이어갈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 함께 뛰는 행복제일 강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도단위 체육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도단위 체육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식은 인기 가수 설하윤, 지원이가 출연하여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줄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참가 선수 여러분이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장애를 넘어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을 따뜻하게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식은 인기 가수 설하윤, 지원이가 출연하여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줄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참가 선수 여러분이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장애를 넘어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을 따뜻하게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2023 원주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원주, 전통시장에서 놀자!' 개최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총상금 1,000만 원



원주시는 원주투데이와 공동으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원주, 전통시장에서 놀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원주 전통시장에 대한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일반 동영상 부문과 스포츠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 또는 노하우, 전통시장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핫플레이스 등 원주 전통시장만의 개성 있는 이야기를 담으면 된다. 오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창작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후 유튜브 응모작 URL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동시, 영상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원주 문화

의 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은 원주시 홍보전광판과 원주시와 원주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은 원주시 공식 블로그, 원주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원주 전통시장에서 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산림·목재 클러스터 거점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 박차

태백시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거점지역인 태백시에 청정수소 생산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미이온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급을 위한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3월 6일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5개 시·군(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거점 지역인 태백시에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고 연접한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원목·미이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전처리 위한 목재수집센터를 조성한다. 강원남부권 5개 시·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10억 원과 지방비 210억 원 등 총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목재 수확의 효율화를 위한 첨단 임업기계 장비 도입과 목조 건축 전망대, 특화거리, 목재 교육센터 등 지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목재종합가공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생산되는 목재 부산물을 포함하여 수소생산에 필요한 미이온 산림바이오매스

를 공급을 위해 태백시를 포함 연접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4개 시·군에 조성 예정인 목재수집센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태백시는 지난 4월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태백시에서 조성된 청정수소 생산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미이온 산림 바이오매스는 일 10톤 규모로 수소 700kg을 생산할 예정이다. 향후 일 50톤 규모의 미이온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일 수소 3.5톤의 생산량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산림청과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6월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연합회에 참석하여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답사를 나누며 중앙-지방 산림거버넌스 파트너십 강화와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장성광업소의 폐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춘천시 민선8기 1년, 첨단지식산업도시·교육도시 발전토대 마련

강원특별자치도법 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단지 반영, 지역산업 도약 발판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첨단지식산업과 교육도시가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장기적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첨단지식산업도시시는 춘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첨단지식산업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춘천 첨단지식산업도시 핵심과제인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1년 가까운 노력 끝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되는 최대의 성과를 얻었다. 춘천시(육동환)는 전담조직인 역점사업추진단을 투입 첫 결재로 구성하고, 춘천시 특례반영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여왔다. 추진단은 기초조사, 기획, 입법인 마련 등을 주도했고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강원도와 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국가예산 중 2021년 기준 고작 1.5% 정도만이 강원도에 쓰여지는 부분을 어필하며 춘천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에 주력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논리와 명분이 연구개발특구가 반영되는 힘이 됐다. 춘천시는 마지막 남은 관문인 시행령 개정에도 지역 여건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정에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시작할 예정이다. 지정 예정지는 역세권 첨단지식산업복합단지, 서면 첨단산업단지, 동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단지, 후평산업단지, 남산면 광관리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까지 총 다섯 곳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에 춘천시와 함께 노력하여 한림대학교가 선정된 것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을 육성

방향을 보여준 성과이다. 첨단지식산업복합지구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근화동 역세권 첨단지식산업복합지구는 지난 1년간 용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춘천역과 의암호 사이 50만m²를 첨단지식산업, 주거·상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하여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2027년 준공 목표로 81만m² 규모로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단지는 어려웠던 보상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7월경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후평산업단지에 첨단지식산업 공간을 위해 지난 4월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단지 내에 업종 첨단화 일환으로 추진한 춘천CT벤처센터가 금년 10월 준공되고, 금년 중 계획하고 있는 단지 명칭 변경을 거치면 이후 산업단지 이미지를 벗고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점차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춘천시는 현재 후평산업단지를 옛 서울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밸리로 발전시킨 모델에 따라 업종을 첨단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지난 5월 말 입법이 완료된 기회발전특구를 첨단지식산업복합단지 일부에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내 기업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종전에 없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춘천시는 지난 1년간 대학의 역량이 기술기반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학 창업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창업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초에는 창업혁신협의회를 구성했다. 강원대, 한림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14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다.

최만식/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결연의 힘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경상북도의회 GYANGSANGBUK-DO COUNCIL

천안시, 7개 지역기업과 청년 채용을 위해 '맞손'

천안시-천안교육지원청-7개 지역기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7개 지역기업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3일 오후 시티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2021년 선정돼 3년차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1년 56명, 2022년 78명의 직업계고 졸업생이 기업에 채용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표창, 행안부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지구에 선정돼 국비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7개 기업 ▲(주)원천 ▲오뚜기

라면(주) ▲(주)코리아신에 ▲에프앤이치(주) ▲(주)파인에코 ▲오엔시티호텔 ▲온양관광호텔과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해 지난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맞춤형 청년 인재양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모두 107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기업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영동군, 주민과의 소통으로 예산 편성 방향 잡는다!

7월 11일까지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실시, 18개 항목

충북 영동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분야와 예산집행에 대한 관심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7월 11일까지 1개월여간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서면설문조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 군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설문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임업 등 10개 분야의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이다.

예산편성운영 등에 관해 개선할 점이나 아이디어도 접수받는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 결과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11월경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군민들이 영동군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군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마케팅 교육 개최

도내 상인, 시군 공무원 대상 도지사 특강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충북도와 충북상인연합회는 6월 13일~14일 1박 2일 간 보은 속리산 레이크힐스 관광호텔에서 도내 상인 및 시·군 공무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실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간 정보 공유와 전통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마케팅 교육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특강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마케팅 전략, 디지털 역량 강화(주)동그란네트워킹 대표)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방안(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충북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시책(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고객 응급상황 대처, 심폐소생술(중앙응급처치교육원 응급구조사) △온누리상품권 운영 및 부정유통 예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장) 등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각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1박 2일 동안 다양한 강연과 간담회가 진행된다.

충북도와 충북상인연합회가 2008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은 충북 11개 시·군 전통시장의 상인 100여 명이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한 곳에 모여 강의를 들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펼쳐 도정 방침을 공유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가 됐다.

김영환 지사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한 환경 조성 등과 함께 상인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시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 주문

주간 간부회의서 공직자 좌고우면 부화뇌동 경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2일 6월 두 번째 간부회의의 석상에서 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우리 공직자들이 혹여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운을 띄운 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 가치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직 가치의 핵심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장이 되어야 하며 신뢰 시장을 인정 받으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형평을 민선 8기 시장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세부 관념이 좀 부족하여 정치화되고 있는 징후나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개인적으로 의사 표시한 것도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 진영의 어떤 가치나 주장들이 표출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단체 행사장에 갔는데 정치적 구호가 버젓이 내걸리거나 단체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표출됐을 때는 철저한 직무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이견 제재 대상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가 있다면 직무감독 책임도 묻겠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시장은 탈 정치화해야 한다. 그 래야 우리가 정당하게 시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시장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과 우리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시장마저 물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시간부들은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여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원호/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 책임돌봄, 2023년 내 초등돌봄 대기 해소 100% 목표

양적·질적 확대 및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023년 내 초등돌봄 대기 0% 노력, 지자체단체 협력을 통한 초등학생 책임돌봄 구현 및 행정지원 확대.

경기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책임돌봄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지원이 목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든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부 방침으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돌봄거점시설 확대 ▲돌봄 시간의 단계적 확대 ▲인성교육 기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돌봄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이다.

우선 단계적 진행을 통해 연내 초등돌봄 대기 100% 해소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4,168명의 돌봄 대기를 해소했다. 이는 올해 총 6,914명의 돌봄 대기 중 60.3%에 해당한다.

초등돌봄교실 증설, 초1 에듀케어 운영 기간 확대 등 지역·학생별 맞춤형 돌봄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 84.5%(5,839명)를 해소하고, 연말에 돌봄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돌봄 수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도청 돌봄 협의체 구축 ▲지자체·지역 협력 돌봄 운영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돌봄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과대·과밀학교

에는 센터형, 원도심·신도시 연계지역에는 거점형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교돌봄터, 경기미래형돌봄교실 등 학교 맞춤형 돌봄을 운영한다.

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7:0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0:00), 틈새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시간) 등 돌봄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다.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확대 ▲지역특화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초등보육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지자체 협력 맞춤형 돌봄 지원을 통해 돌봄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고 돌봄 학생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책임돌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부산교육청, 학교 식당을 학생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범 조성

단순 식사 장소에서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탈바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 사하구 부산일과학교의 기존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던 학교 식당을 소통과 휴식,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범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 학교 급식은 식당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교실에서 배식을 해왔다. 이후 학교 유휴공간이 확보되면서 식당을 구축해왔지만, 이마저도 공간이 협소해 짧은 시간 학년별 교대로 식사를 해왔다. 학생들은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부산교육청은 수년 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유휴공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식당을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 식당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던 부산일과학교 식생활관(급식실)을 올해 2월 시범적으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먼저, 학생들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 다양화에 주력했다. 2인 식탁(커플 식탁), 4인 식탁, 6인 식탁, 카페형 식탁, 테라스 식탁 등을 비치해 식당 내 어디서든 식사를 할 수 있어 평균 식사 시간이 늘어났다.

식당 내 문화예술 공연무대도 마련해 '런치 콘서트', '런치 버스킹' 등을 통해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게 했다. 또, 식사 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대형 TV도 설치해 각종 뉴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식당에서 친구들과 대화, 사제간 상담이 가능해지는 등 학교 구석구석 소통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일과학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

김범규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식사 시간에 소통과 휴식, 여유도 더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인천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해외대학 관계자 초청 세미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해외대학 관계자 초청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조성훈 교육감,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바드룰 무니르(Dr. Badrul Munir)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 학생처장, 마이클 코켄(Mr. Michael Kocken)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한국대표부 부대표를 비롯한 해외대학 관계자, 본청 사업 담당 부서 포함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대학은 ▶호주 테일 퀸즐랜드(Tafe Queensland) 대학교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대만국립청화대학교 ▶국립대만대학교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교이다.

세미나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관계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진 해외대학 입학전형 사업 설명과 함께 해외대학 대표의 학교 소개,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상에 대한 발표로 진행했다. 이후에는 기관별 대표의 발표와 함께 현장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박람회"와 연계 진행했으며, 인천시 교육감 추천 특별 입학전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현재 논의 중인 대학이 참여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이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을 홍보하고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해외 대학 입학전형 정보를 습득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것 기대한다"며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 사업은 향후 우리 인천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발대식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발대식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제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2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3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발대식을 개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을 함께 공유해 연대감을 높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국외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기존의 발대식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다. 먼저, 포토존을 만들어 프로그램 참여 가족과 시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발대식 현장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진행하는 코너를 넣어 학생 주도형 발대식이 되도록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 분야 참여 학생들의 공연(글로벌 퍼포먼스)

핵심역량, 주요 교육정책 등을 반영해 추진된다. 이는 ▲민주안전 ▲평화통일 ▲역사문화 ▲ITAI ▲문화예술 ▲진로직업 ▲언어일반 ▲해외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발대식을 통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발대식이 학부모님의 국제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 학부모 양육특강으로 자녀 이해 쏙쏙, 소통 쏙쏙

6월 9~10일, 23~24일 관내 학부모 대상 양육특강 실시

학부모 양육특강(초등)

일시
6월 9일(금) 10시~13시 / 6월 10일(토) 10시~13시

장소
권용실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성부성심리학과)

주제
-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 질환으로서의 행동장애
- 뇌발달과 정서행동 연관성
- 아동기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
- 내 자녀와의 관계 특성
- 수용과 변화전략이란
- 부모의 나 자신 돌보기

장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3층(대회의실)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xGizyTkE>)

문의처
Wee센터 인소담 ☎860-4428

*신청 후 불참 시 향후 특강 참여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나흘간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반기 양육특강을 실시한다.

6월 9일과 10일은 초등 학부모를, 6월 23일과 24일은 중고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특강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권용실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방법을 개선하고자 진행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행동문제 유형 ▲뇌발달과 정서행동 연관성 ▲아동·청소년기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 ▲내 자녀와의 관계 특성 ▲수용과 변화전략이란 ▲부모인 나 자신 돌보기 등을 주제로 하여 상반기 학부모 양육특강을 운영한다.

또한, 본 특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강사와 직접 문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에 질문을 취합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며 더 나은 양육, 행복한 가정으로 한걸음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최만식/기자

2023년 상반기 안산·시흥·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연계 직무아카데미를 통한 신규 공무원 기초역량강화 추진

14일 '2023년 상반기 안산·시흥·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연계한 신규 공무원 대상 직무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6월 14일, 19일 이틀간 안산·시흥·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이 연계한 신규 공무원 대상 직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직무아카데미는 2022년~2023년 안산·시흥·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및 각 지역 관내 학교 신규 공무원 104명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강화(미래교육 스마트오피스 현장체험) ▲예산기초(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예산의 이해) ▲행정기초(보고서작성법 및 보고기법) ▲급여기초(급여업무의 이해)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구성 다양화 및 교육 효과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안산·시흥·안양·과천 등 경기 서부 권역 지역연계 연수를 운영하는 중이다. 이번 직무아카데미 1기는 교육지원청 재직 신규공무원 대상, 2기는 학교 재직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구분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각각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을 거점 지원청으로 정하여 신규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이번 직무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안산·시흥·안



양과천 신규 공무원들의 기초역량 향상과 더불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성장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상반기 연수에 이

어 하반기 신규 공무원 대상 직무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현장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최정무/기자

'2023 양양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오는 17일 개최

'2023 양양 그란폰도'가 오는 17일 아름다운 남대천과 설악산을 배경으로 양양군과 인제군 일원에서 열린다.

'그란폰도(gran fondo)'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다.

양양군은 그란폰도 대회 개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양양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소개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양양군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 양양 그란폰도'는 1,500여명의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양양교 북단 제방도로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돌아 양양을 해오름아파트 앞 제방도로까지 130km(양양 75, 인제 55 / 회득고도 2,371m)를 자전거로 달리게 된다.

참가자격은 2004년 6월 17일 이전 출생자(대회 기준 성년자)이고, 15일 18시까지 양양그란폰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설악산 오색령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펼쳐지는 130km의 레이스

참가비는 6만원 등으로 참가자들에게는 홍보물품, 모바일기록증, 기록 측정용 칩 등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완주자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회 당일 원활한 코스 운영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전면통제, 서행 및 우회 유도 등 교통통제가 진행된다. 군은 이날 선수들의 안전한 라이딩과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살 15대, 응급차량 6대, 교통통제 인력 27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도, 속초·인제경찰서에서는 주요 지점 교통통제를 맡는다.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체육회, 양양군 자율방범대, 양양군의용소방대, 양양군 모범안전자회, 양양군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단체에서 129명, 인제군에서도 인제군의용소방대, 인제군모범안전자회

등 44명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고 무리한 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구 옥녀탕휴게소에서 오후 1시 30분 컷오프 타임을 운영하며, 컷오프 된 선수는 미리 배차된 차량으로 안전하게 대회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라이딩을 종료한 참가자들은 남대천 물놀이장(워터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력적인 도시이자 핫플레이스인 양양을 알리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일부구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부평문화원, 유월에 부평 단오축제 개최

부평문화원이 오는 18일 부평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유월에 부평 단오축제'를 개최한다.

부평구가 주최하고 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씨름대회, 민속놀이대회를 비롯해 창포머리감기, 단오부채 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등 우리 고유의 단오 풍속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마당이 진행된다.

야외특설무대에서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 부평두레놀이 공연, 전통성년식, 한국무용, 발레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이 마련됐다.

또 행사장 내 마당에서는 부평22개 동통물단이 준비한 지역의 단결과 화합을 상징하는 '부평 오색놀이'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진다.

신동욱 부평문화원장은 "유월에 부평 단오축제는 다양한 세시풍속체험 및 문화행사가 펼쳐져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스마트 문화도시 성동, 서울숲 힙합&뮤직 페스티벌 큰 장 연다

이달 17일, 서울숲공원 가족마당에서 전 세대가 즐기는 힙합&뮤직 페스티벌 첫 개최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서 오는 17일 다양한 세대와 문화로 소통하고 즐기는 음악축제, '2023 서울숲 힙합&뮤직 페스티벌'이 처음 개최된다.

올해 1회를 맞는 이 축제는 스마트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근 힙합은 랩이나 디제잉, 비보잉, 스트리트 댄스 그리고 즉흥 예술인 그라피티 등 음악, 댄스, 패션 분야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표출되고 있다. 아제는 MZ 세대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공연관람은 주관인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했으며, 상황에 따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이번 페스티벌은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이자 힙합 오픈션 프로그램 '소미더너'에서 수차례 프로듀

서로 참가, 베테랑 래퍼로 알려진 성수동 개아범 '팔로알토'를 앞세웠다. 이어 성동구에 연고를 둔 멤버들로 구성된 6인조 힙합 크루 '언더 성수 브릿지'에 이어 힙합의 대표주자 비보잉 퍼포먼스를 선보일 ▲김블러크루 ▲래퍼 쿤디파나 ▲래퍼 최엘비 등 실력파 음악가들이 함께한다.

대한민국 최고 안무 레이블인 '원밀리언'과 글로벌 음악 레이블인 '웨이비'도 이번 공연에 참여한다. 소미더너 시즌9, 10에 잇달아 출연해 힙합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실력파 아티스트인 안병웅과 카키의 에나지와 개성 넘치는 무대도 준비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대행사로 페이스 페인팅 체험, 비디타투, 그래피티 스티커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만큼,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숲에서 힙합과 비보이 공연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장르를 발굴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문화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더위야 물렸거라~ 단오맛이 2023 와룡민속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와룡아랫공원(이곡동 소재)에서 단오를 맞아 민속씨름, 전통놀이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민속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2023 와룡민속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와룡민속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월배권의 달배달맞이축제, 두류권의 두류문화화한마당과 함께 성서권의 지역주민 화합 단오맛이 행사로 오는 6월 17일 와룡아랫공원에서 개최된다.

성서지역발전회와 달서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씨름대축제, 동별 율놀이 대항전, 떡메치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 주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오 명절의 전통을 잇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씨름단 초청경기, 지역 출신 이태현 천하장사의 팬사인회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지역가수의 축하공연과 방송인 이동준씨의 멋진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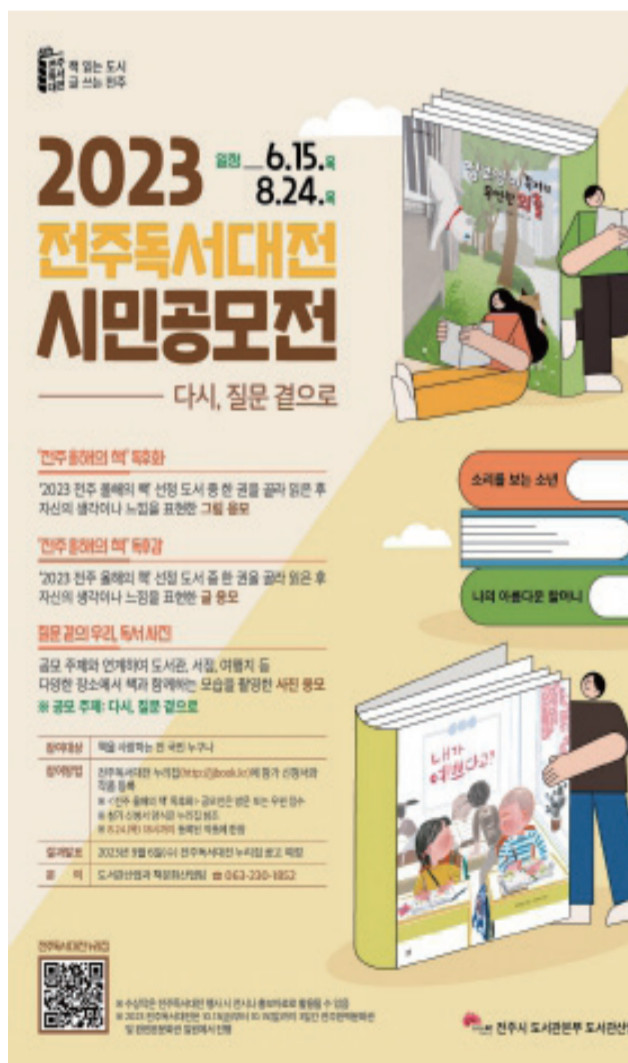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잘 맞이하고자 준비했던 다양한 단오 풍속의 의미를 깨닫고, 주민들과 화합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2023 전주독서대전, 시민 참여로 풍성해진다!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와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독서 사진 등 3개 부문 시민 참여 접수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질문 곁의 우리, 독서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와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부문이 신설돼 참여 대상이 어린이까지 확대됐다.

먼저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글·그림) 부문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주시 도서관산업과(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3층)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은 초등부(4~6학년)와 중·고등부, 성인부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4권

소에서 책과 함께하는 모습을 촬영 후 고해상도 사진(2400x1600 픽셀 이상)을 1인당 최대 2점 이내로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부문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뒤, 오는 9월 6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더불어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2023 전주독서대전' 기간 동안 전시 및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수상작이 수록된 문집 '내게 가장 소중한 책 이야기'도 발간된다.

이와 관련 '2023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및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시민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길 바란다"면서 "시민공모전과 함께 2023 전주독서대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의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비와유 남이포, 심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배굴,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사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신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립자연보존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화공원, 영양풍력발전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문재수석야생화전시관



www.yyg.go.k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문화 축제인 '2023 전주독서대전'이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축제로 준비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3

중 한 권에 대한 독후감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질문 곁의 우리, 독서 사진' 공모전은 올해 전주독서대전 주제인 '다시, 질문 곁으로'와 연계해 도서관과 서점, 여행지 등 다양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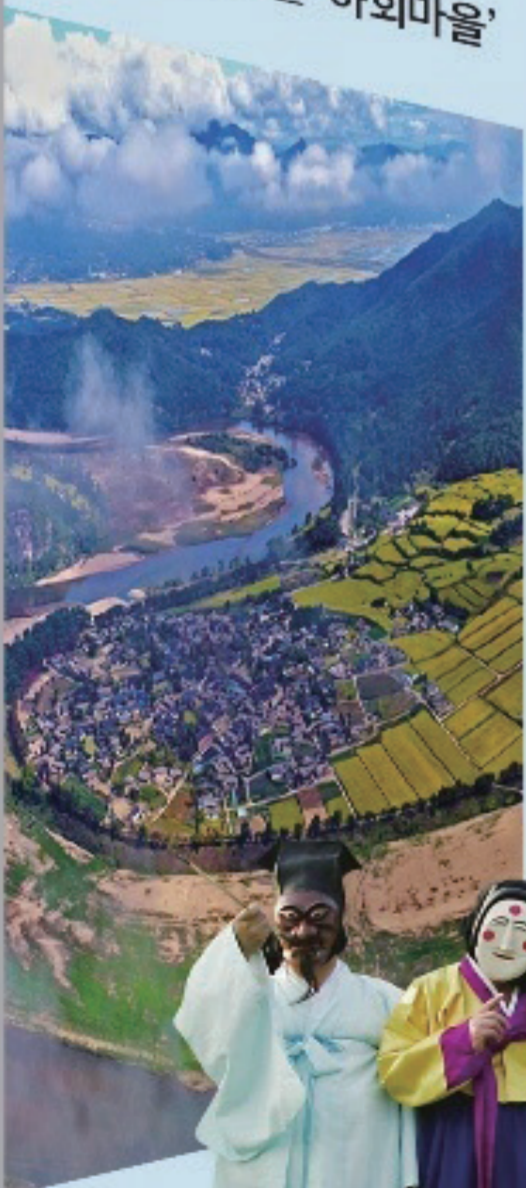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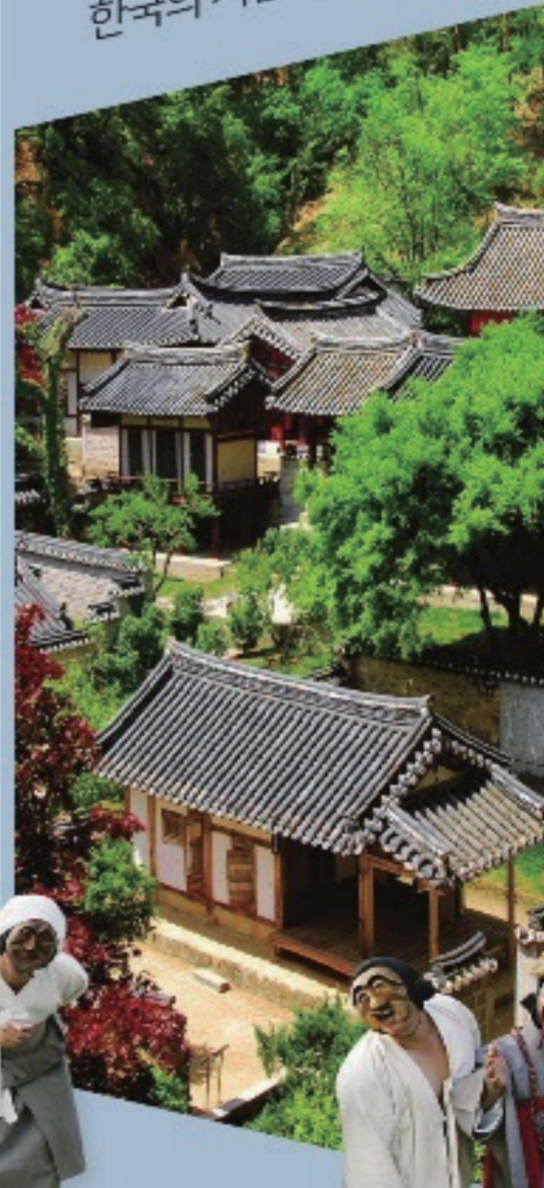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